

ACC '나는 광주에 없었다' 4년 만의 공연

내달 15~18일 예술극장 극장1
1980년 5월 10일간 항쟁 재현
관객 참여형... 고선웅 연출 등
조선대 재학생 보조출연 예정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제작된 '나는 광주에 없었다' 공연이 4년 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다시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ACC 5월 레퍼토리' 공연으로 재창작해 오는 5월 15~18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치열했던 10일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관객 참여형 연극이다.

광주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공연은 1980년 격정적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관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끈다. 관객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재현한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함께 공연의 중요 역할로 참여하며 그날의 현장을 극적으로 경험한다.

여기에 ACC 예술극장의 고도화된 무



ACC 5월 레퍼토리 작품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오는 5월 15~18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에서 공연된다.

ACC 제공

대기술과 '감정 드라마'의 장인 고선웅 연출가 특유의 밀도 높은 연출기법이 더해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직관적으로 풀어낸다.

ACC는 이번 공연을 'ACC 5월 공연'으로 정례화하기 위해 관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 년여 간의 제작회의를 통해 무대와 연출부분의 재단장 과정을 거쳤다. 관객이 마주보는 위치에 스크린을 설치해 무대와 드라마가 한눈에 들어오는 효과적인 무대연출을 구현했으며, 객석 바닥재 보강과 함께 휴대용 객석

의 다양한 활용을 더해 극의 직관적 몰입을 유도했다.

또 ACC 전문 인력(무대기술, 프로듀서)이 제작파트에 직접 참여해 제작극장으로써 창·제작 노하우를 한층 높였다. 이외에도 국내외의 투자를 위해 무대장치와

시스템도 전략적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공연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연출을 맡았던 고선웅 감독이 연출하고 최근 TV 드라마를 통해 '국민엄마'로 자리매김한 전남 목포 출신 배우 황영희 등 극공작소 마방진 배우 34명이 출연한다. 또 지역 사물놀이팀과 조선대학교 재학생들이 보조출연자로 함께한다.

공연은 13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입장권 가격은 전석 2만원이다. 1980년생과 5월 18일생에게는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과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선웅 연출은 "연극은 때로 사실보다 더 진실하다"면서 "110분 동안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세대가 하나 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과 ACC 공연제작팀이 합심해 만든 공연"이라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시간을 공감하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빛고을예술단 '2024 양림예술축제' 내달 4일 시작

매월 두 번째 토 오후 6시
양림동 펭귄마을 야외광장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에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빛고을예술단이 올해 '양림 예술축제(사랑의 콘서트)' 첫 공연을 오는 5월 4일 오후 6시 광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의거리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

광주 남구 후원, 서양세마을금고 협찬으로 이날 진행되는 제752번째 '양림 예술축제'는 재즈가수 장소영, 7080통기타 가수 최영준, 지스타의 퓨전난타, 박용주 음향감독의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음악

과 함께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희극·품바 등이 펼쳐진다.

빛고을예술단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6월 8일, 7월 13일, 8월 10일, 9월 14일, 10월 12일 등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시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의거리 야외광장에서 '양림 예술축제'를 연다.

지난 2000년 1월 5명의 단원으로 창립된 빛고을예술단(옛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은 2005년 8월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사랑의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회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연을 선보여왔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떠나는 '봄의 여행'

내달 4일 ACC 어린이문화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5월 4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문화원에서 '봄의 여행'을 공연한다.

ACC의 대표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HOW FUN)' 기간에 맞춰 선보이는 공연이다.

'하우펀'은 매년 어린이날 주간 ACC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열리는 체험·공연·교육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축제이다. 올해는 10회째로, 5월 4~5일 이틀 동안 '도시 따라 지구 한바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하우펀 협력 프로그램으로 봄을 주제로 한 외국 가곡과 한국 동요 및 노래를 새롭게 편곡해 남녀노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음악여행을 준비했다.

슈베르트의 'Frühlingsglaube(봄의 믿음)', 토스티의 'Aprile(4월)', 스칼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는 5월 4일 ACC 어린이문화원에서 '봄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티의 'Le Violette(제비꽃)' 전통 클래식의 색채를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색으로 들려준다.

또한 유명 한국 동요인 '고향의 봄', '나뭇잎 배', '과수원길', '나물캐는 처녀', '푸르다', '고향방'을 비롯해 봄의 대표적인 꽃인 벚꽃을 다룬 '벚꽃팝콘', '벚꽃여

행', '벚꽃엔딩'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기원 지휘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가족들이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하우펀 축제에 와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 및 체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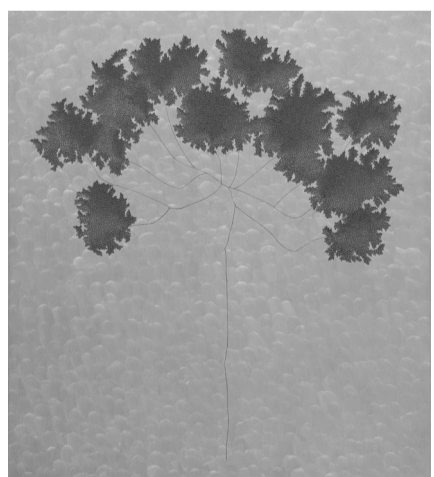
오월의 푸르름 담아낸 정소영 개인전

내달 1일부터 대담미술관

담양에 있는 대담미술관이 정소영 작가의 개인전 'Verdancy Shining Like the Wind(바람처럼 빛나는 푸르름)'를 오는 5월 1일부터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정소영의 작품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나뭇잎'을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집 앞 커다란 은행나무에 올라 그늘에 기대어 따사로운 햇살이 전해주는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들인 적 있다. 어린 시절 경험을 '바람처럼 빛나는 푸르름'의 형상으로 단순화했고 반복적인 패턴과 호흡하는 생명력, 볼륨 있는 형태와 반짝거리는 터치 그리고 화려함과 미묘한 나뭇잎의 움직임은 창조했다.

정소영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에는 졸업자가 몇 없는 영



정소영 작 Blowing in the wind.

대담미술관 제공

국 런던 UAL 첼시 파인아트 석사를 받았다. 전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이어진다.

도선인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2024 상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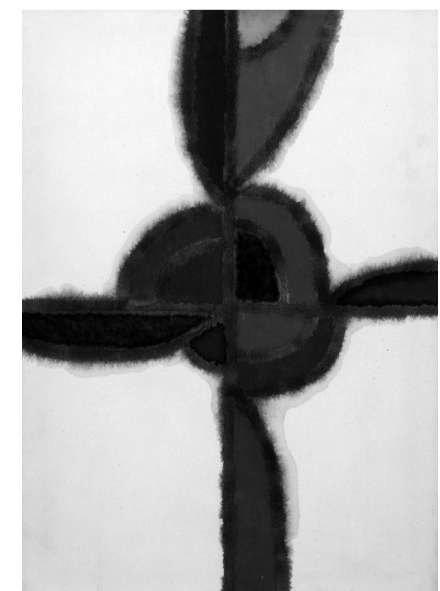
내달 8일부터 20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은 미술관의 정체성에 기반한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 '2024 상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를 오는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 작품 △전남 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품 △전남의 역사, 지리, 자연, 문학적 특징을 소재로 한 작품을 수집한다. 미술관은 공모 절차로 수집된 우수한 작품들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작가, 화

랑, 법인 관련자 등 작품 소장자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신청자는 1점, 화랑·법인은 최대 2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품수집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2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구입 여부와 가격이 결정된다. 최종 선정 작품은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미술관은 오는 5월 7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실시한다.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artmuseum.jeonnam.go.kr) 및 미술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소장품 김환기 작 무제.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